

RaomAtti

위대한 사람들 - 캠퍼스

350PPM ><

Commercial Solutions to Climate Change

A pair of hands is shown holding a small, green tree sapling with soil. In the background, a globe is depicted where the continents are represented by white shapes and the oceans are covered in green leaves, symbolizing a greener planet. The entire scene is set against a light gray background.

# 작은 실천부터 350ppm

# 1

## 계단 이용하기



**환경을 위한 한걸음  
계단 이용하기~**

**양산 YMCA는 4층에  
위치하는데요! 훈련기간  
동안 저희 팀은 최대한!  
계단을 이용하였습니다~**



2

## 텀블러 사용하기



**3**

## 에어컨 적정온도 지키기



**너무 더운 날에만  
에어컨을 키고~**

**최대한 에어컨 자체  
를 키지 않는  
식으로 실천하기!**

# 4

## 장바구니 사용



**장볼 때는 장바구니 필수!**

**만약 놓고 왔을 때는 다시 가지러 갈 정도로 철저히 지킨 약속입니다 ~!**

# 5

## 전기 아끼기



1. 불 한 개만 켜기
2. 안 쓰는 전기 콘센트 뽑아 놓기

전기를 아끼기 위해 안 쓰는 공간은 꼭 불을 꺼놓았어요!

# 7

##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조금 먼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산책도 되고, 운동도 되는 1석 2조 효과가 있었어요! (다만 살은 안 빠짐..)**



A pair of hands is shown holding a small, green tree sapling with soil. In the background, a globe is depicted where the continents are white and the oceans are green, symbolizing a lush, green Earth. The entire scene is set against a light gray background.

# 함께하는 350ppm

# 8

## 플라스틱 ZERO 캠페인 -카페 모니터링 중



# 9

## 어린이들과 약속하는 350PPM

H 대폰 : 같이 있을 땐 얘기하자  
 최대한 환경을 위해서도 좀쳐보자

S 쓰레기 : 비닐 쓰레기 최대한 줄여보자!  
 환경을 보전하자

- UNDER THE SEA 모듬 - ♪♪  
 \* 다윈, 우주, 채민, 정현, 수진, 현지\*

가 늘 하기 (쓰레기의 양을 줄여나  
 원자 얼마나 많이 쓰레기를 사용하느니  
 알 수 있다)

L 부티 실천하기 (인원들 사람 X  
 페이퍼 바깥에 라벨 (표기)  
 가까운 거리 걷기)

[ 같이 실천하기 (전반 다 먹기  
 대중들 이해하기)

K 재사용하기

R 라스틱 분리배출하기

E 지 말고 걷기 (가까운 거리는)



O ~~이~~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산화 탄소  
 를 줄이자.

Z 자동차를 멀리갈 때만 타자

T 친구들을 생각해서라도

꿀단지

10

# 분리수거 잘하기, 쓰레기 안 만들기



# 11

# 잔반 남기지 않기



# 12

# 같이 한 사람들



양산 커피숍



우리의 정신적 지주  
박간사님



어린이 시민 20 명



**희진 :** 350PPM을 하기 전에는 마트에 갈 때 비닐봉지를 받아오는게 당연했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했고, 일회용품을 쓰는게 당연했다. 그러나 350PPM을 하면서 마트에 갈 때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게 당연해졌고, 계단을 이용하는게 당연해졌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게 당연해졌다. 350PPM은 나에게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을 당연하게 만들어 주었다.

**지호 :** 처음에는 전기콘센트를 뽑기, 종이컵 대신 텀블러 컵 사용하기, 분리수거,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기 등 더운 날씨에 하기도 귀찮고 왜 하는지도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분리수거를 하고, 컵을 사용하고, 장 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자는 말이 나왔다. 처음에는 이러한 생활습관이 불편했지만 몸과 마음이 적응을 하니 환경문제에 관해서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재완 :** 350PPM을 실천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는 등 사소하지만 작은 다양한 것들을 시행하였습니다.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떠올렸을 때에는 되게 쉬운 것들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몸소 실천을 해보니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종이컵을 사용하면 편할 텐데... 엘리베이터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조금씩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것들이 당연시되었고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위한 저의 실천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조그만 실천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큰 도움으로 나비 효과가 작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 캠페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다양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 환경을 위한 마음만은 같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주신 것 같습니다. 환경을 위해 그렇게 마음 아파 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350ppm은 저희들의 서투른 작은 실천의 가치를 알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작은 실천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수록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이 나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50ppm이라는 숫자는 저에겐 '참여' 라는 가치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팀원들의 가치는 무엇일지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모인다면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힘으로서 350으로 향하는 길은 분명 바뀔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채윤 : 어릴 때 분리수거를 해 온 저로서는 이미 습관이 되어 힘들었던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리한 플라스틱과 비닐의 재활용이 많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병 같은 경우는 무색인 PET병이어야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라던가 유럽에서는 이미 PET병 색이 없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재활용이 되는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8월부터 시행된 매장 안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하지만 계속되는 손님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예전에는 '나 한 명이라도 누구 한 명이라도 노력하면 ~' 이었다면 지금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나날이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라면 이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 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인 우리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이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